

혁신성장에 85조... 조용병, 금융뉴딜 'N.E.O' 시동

(5년간)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성장산업 금융지원 등 3대 방향 비대면·그린 관련 기업 대출 확대 '금융데이터거래소' 활성화 주도

신한금융그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향후 5년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8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약 6700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신한금융은 8일 금융권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新)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네오 프로젝트(N.E.O. Project)'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N.E.O.는 경제의 신 성장동력 발굴을 신한이 금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겠다(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위한 금융의 뉴딜정책인 '신한 네오 프로젝트'는 ▲신성장산업 금융지원 ▲신 디지털금융 선도 ▲신성장생태계 조성 등의 3대 핵심방향으로 추진된다.

신성장산업 금융 지원은 국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 사회간접 자본(SOC) 디지털화, 친환경 등 미래 유망 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활용 강화와 IP 담보대출 활성화, 비금융 신용평가 등을 통해 비대면·그린(Green) 관련 창업·중소기업의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한금융은 연세대학교 CSR



자료//신한금융그룹

연구센터와 협업해 만든 그룹의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인 '신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SVMF)'를 신성장산업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도 늘린다. 벤처캐피탈 출자를 통해 신성장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고, GIB 사업부문의 투자기능을 활용해 정부·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은 기존 혁신성장 대출·투자 공급액을 현재보다 20조원 이상 늘려 향후 5년간 8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자체의 디지털 가속화를 통해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신디지털금융 선도도 적극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디지털 뉴딜'에 맞춰 그룹이 보유한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또 14만 개 규모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여신 심사, 소호(SOHO) 플랫폼 등 금융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핵심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획기적으로 추진해 보다 넓은 산업영역과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법인 여신의 신규·여신 프로세스 개발부터 종이없는(Paperless) 영업환경, 디지털 기반의 환전, 무역·무역외 송금 처리, 소호 특화 모바일 플랫폼 구축까지 기업금융의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기업금융의 전면 디지털화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신성장생태계 조성은 디지털 스타트업에 발굴하고 산업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신한 트리플 케이(Triple-K) 프로젝트'를 통해 거점 별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을 계속 조성해 ▲서

울 '두드림스페이스' ▲대전 'D-브릿지(Bridge)' ▲인천 '스타트업파크' 등을 잇는 전국 단위의 혁신 성장 플랫폼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권 최초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신한벤처스랩 등을 통해서 오는 2023년까지 디지털 스타트업에 1100억원을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각종 사업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그룹에서도 향후 5년 간 약 6700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50% 이상을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형 인재로 영입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 네오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펼쳐질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신한금융의 신성장전략"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해 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은행 총 자본비율 14.72%... 0.54%p 하락

금감원, 3월말 BIS기준 자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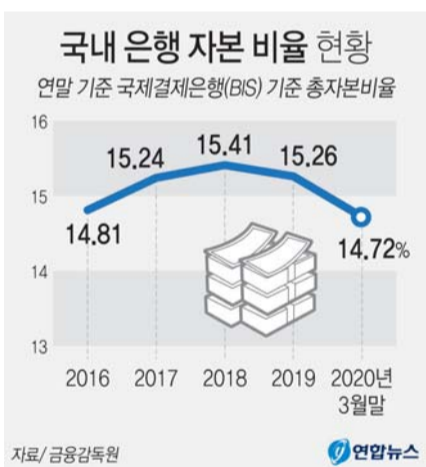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은행들의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4.72%, 12.80%, 12.16% 및 6.30%다.

전년 말 대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0.54%포인트, 0.41%포인트, 0.40%포인트 하락했지만 규제비용 대비 3~4%포인트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은 1분기 중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4.7%로 자본 증가율 1.0%(총자본 기준)를 큰 폭으로 웃돌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물론 환율상승으로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가중자산이 늘면서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증가했고, 시장변동성 확대로 시장 위험가중자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모든 은행이 완충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용을 충족했다.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은행(D-SIB)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15%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1분기부터 바젤Ⅲ를 적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위험가중치가 하락하면서 자본비율이 상승했다. 카카오뱅크의 총자본비율은 14.29%로 안정적인 수준이며, 케이뱅크

크의 총자본비율은 11.14%로 국내은행들 가운데서는 가장 낮지만 지난해 말 10.88%에서 상승했다.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40%, 11.97%, 10.95% 및 5.58%다. 자회사의 자산이 늘면서 전분기 말 대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0.14%포인트, 0.13%포인트, 0.15%포인트 하락했다.

모든 은행지주회사가 완충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용을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의 총자본비율이 하락했지만 바젤Ⅲ 규제비용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대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지주회사가 규제비용 대비 자본여력(buffer)을 가지고 있으며, 바젤Ⅲ 최종안 시행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은행은 BIS 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h수협은행, 헤이적금 가입 이벤트

'슬기로운 금융생활' 이벤트 3탄

Sh수협은행은 8일 '슬기로운 금융생활' 이벤트 3탄으로 '헤이(Hey)적금 가입하고 원하는 선물 골라받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되는 헤이적금은 모바일뱅킹인 헤이뱅크(Hey!BANK)와 파트너뱅크, 스마트뱅크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헤이적금은 6개월, 12개월 만기 자유적립 또는 정액적립식으로 월 2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우대조건에 따라 최고 연 2.6%의 금리를 제공한다.

헤이적금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가입자 3000명에게 스타벅스 쿠폰, 구글 기프트카드, 지니, 웨이브 스트리밍 이용권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마일리지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링플랫폼과 손잡고 다양한 상품을

고객이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알찬 금리 혜택과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이 한층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하나은행 '하나 카카오페이 통장' 출시

하나은행은 최근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더한 '하나 카카오페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나 카카오페이 통장'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규개설이 가능하다. 연결계좌 등록 후 손쉽게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의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및 하나은행 자동화기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또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에 '하나 카카오페이 통장'을 개설하고 카카오페이 충전계좌에 연결등록한 고객에게는 카카오페이머니 및 카카오 인기 이모티콘을 증정한다.

한준성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앞으로도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를 제공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결합해 은행과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공적 제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감사 그리고 기억예금' 판매

NH농협은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감사 그리고 기억예금'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그리고 기억예금'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 및 유해 발굴사업 홍보를 위해 출시했다. 9일부터 7월 17일까지 1000억원 한도로 판매하는 정기예금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년, 1인 1계좌,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가입 가능하다. 농협은행 큰만족실세예금 1년 기본금리에 특별우대금리 0.55%포인트를 더해 이자가 지급된다.

'감사 그리고 기억예금'은 농협은행 전국영업점과 농협인터넷·스마트뱅킹



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손병환 농협은행장은 "6·25 전사자의 유해가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길 기원한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정부의 유해 발굴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